

디지털 네트워크 세상의 글로벌 리더를 향하여 —

DAEDUCK *story*

Spring
2015 + Vol.5

- 02 감사나눔 실천하기_감사일기적기
- 03 감사나눔 실천하기_감사나눔편지
- 06 Family Story 1_행복편지
- 08 Family Story 2_가족여행기
- 10 Enjoy_RC의 매력
- 12 Group Introduction_QA그룹
- 16 Health_짬뽕의 유혹
- 18 News
- 21 생생 대덕 정보통!





미국 예일대학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당신은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예’라고 답변한 학생은 전체의 15퍼센트였습니다.
 그 다음 질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자기 목표를 구체적으로 적어보시오.”
 이 지시에 따라 자신의 목표를 명확하게 기록한 학생은 전체의 3퍼센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22년 후에 그들의 달라진 인생을 추적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구체적 목표를 적은 3퍼센트의 부가 나머지 97퍼센트의 부를 앞질렀던 것입니다.
 ‘적기’를 거꾸로 하면 ‘기적’이 되지요.
 ‘적기의 기적’을 맛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감사 일기 쓰기에 도전해 보세요.

<도서 '30초 감사(정지환 지음)' 중에서>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 대덕인들이 전하는 감사의 메시지

감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감사의 표현은 직원 간에 또 부서간의 소통으로 업무 성과를 높입니다. 대덕스토리에서는 감사나눔 편지를 통해 일상의 고마움을 전합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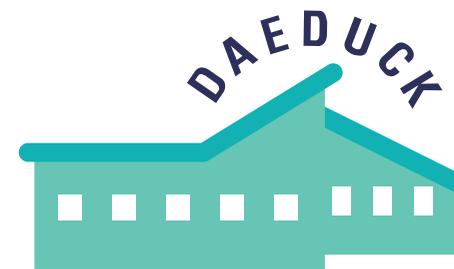
고마운 룸메이트님 진영씨



엄마 같은, 언니 같은 룸메이트 진영씨 ♥
 이렇게 편지로 전달하려니 손발이 오글오글하네요. 그래도 같이 살면서 고마운 일이 정말 많았는데, 이렇게 감사함을 나눌 기회가 생겼으니, 고마운 마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널리 널리 룸메이트 자랑 좀 해야겠다 생각되어서 편지를 씁니다!
 우선, 가장 기억에 남는 고마운 일은 제가 아팠을 때네요. 워낙 튼튼해서 잘 아프진 않지만, 그 날은 심하게 체해서 정신 없이 아팠던 기억이 나요. 옆에서 걱정해주고 챙겨주셔서 정말 가족 같은 따뜻함을 느꼈어요. 특히 그때 타 주신 꿀물이 정말 특효약이었죠! 먹고 나서 덕분에 언제 아팠냐는 듯 곧 싹 나았네요. 그리고, 아침밥 대신 과일이나 맛있는 것도 챙겨주고, 비 오는 날 우산까지도, 사소한 것들을 꼼꼼히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친한 친구, 가족도 이렇게 챙겨주지 못 할거라 생각하는데, 정말 최고의 룸메이트입니다!!! 같이 고민을 나누거나, 기쁜 소식을 전하며 서로 잘 지내고 있지만, 제가 감정표현에 서툴고 무뎡뎡하고 애교 있는 편이 아니라서, 같이 사는 재미가 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저도 친동생같이 잘 하고, 집안일에도 솔선수범하겠어요. 애교는 자신 없고... 앞으로도 즐겁게 사이 좋게 자매처럼 잘 지내보아요. 고맙습니다!

생산관리그룹 최유경

고맙고 사랑스런 나의 일터 대덕전자



함께한 시간이 벌써 15년하고 3개월째
 이곳에서 가정을 이루고 내 집 마련도 하고 아들들도 낳고... 하루하루 잠에서 깨어 갈 곳이 있다는 것이 정말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지금의 소소한 행복이 모여서 지금 내가 있고 또 우리가족의 행복이 계속될 수 있다 생각하니... 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할 일인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튼튼하게 잘 지내보자. 파이팅 나의 일터!!!
 I LOVE YOU 대덕전자.

P3 PSR 강정훈

자매 같은 회사 동료, 김보미 사우



회사라는 울타리로 만난 친자매 같은 김보미 사우.
 때론 동료 같고, 친구 같고, 친자매 같은 보미 사원에게.
 같은 품질업무를 하면서 때로는 품질이라는 업무가 불량과 양품의 기준을 타인에게 설명
 하고, 대외적인 품질 인식을 대표하는 품질이란 업무를 하게 되는데, 옆에 서로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동료가 있다는 건, 큰 의지가 될 때가 많아요,
 처음 보미씨가 품질로 입사할 때부터 지금까지 쭉 함께한 시간이 벌써 5년이 지났네요.
 여자가 하기 힘든 IQC 원자재품질업무를 잘 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 우려도 되었지만
 자신에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 열정을 보면 저도 가끔 힘이 나고 덩달아 열정
 이 생기는 것 같아요.^^
 회사가 업무의 절반은 대인관계라고 하는데, 옆에 있으면 밝은 기운이 묻어나는 보미씨
 동료로 있다는 것이 참 고맙고 기쁘네요.

품질경영그룹 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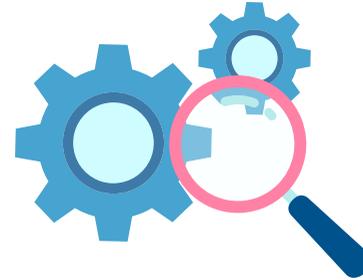
업무 종결자 천태성 선임

P3공장 스카이 워스 제품 양산을 다른 공정은 진행 중이지만, 도금공정의 양산작업만 여
 러 사정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철주야 고생하면서 P3 스카이 워스 제품 동도
 금생산을 위해 업무에 총력하여 TEST진행하고 계시는 천태성 선임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노력한 덕분에 개선의 방향도 찾은듯합니다.
 고마운 마음에 저녁 먹고 싶어도 끝맺지 못한 업무로 시간내지 못하고 있어 달리 고마운
 마음 표현할 길이 없어 감사나눔 캠페인을 빌어 정말 고마워하는 저의 마음 전달되었으
 면 합니다.
 항상 고생 많습니다.

P3 제조그룹 권영민



QA 담당자들에게



QA 담당자들의 업무특성상 고객을 만나서 좋은 이야기보다는 싫은 이야기들을 많이 들
 게 되고 때로는 품질문제로 인하여 문제가 해결 될 때까지 고객사에 불모 아닌 불모로
 잡혀 있고, 시시 때때로 불려가서 대표로 혼나고 오는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한 고객의 VOC를 대응하기 위하여 내부의 협조 요청을 하지만 타 부서들도 현업이 바
 빠서 또는 QA의 고객 대응입장을 몰라서 협조가 잘 안되다 보니 고객 대응의 일정에 맞
 추기 위하여 밤을 새는 일들도 많은데 지금까지 잘 참고 대응 해주는 QA 이부장과 담당
 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직 개개인의 능력도 배가 시켜야 하고 고객의 평가를 좋게 받기 위하여 넘어야 할 산
 들도 많지만 QA 여러분들이 참고 열정을 가지고 계속 대응해 준다면 회사의 품질 관리
 레벨과 고객 평가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QA 담당자들이 다소 지쳐가는 것 같은데 저의 칭찬 한마디가 힘이 될 수 있었으
 면 합니다.

품질경영팀 지상철

나에게 보내는 편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저에게 있어 감사함을 나눌 수 있는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있다면 얼마나 될까. 처음 생각 할 때는 있을 듯 없을 듯 많은걸 생각 하게 하더군요. 여
 러 날을 머리에 담아두고 내린 결론은 많아도 너무 많다는 겁니다.
 먼저 매일 같이 나의 주변을 지켜주는 아내와 딸 그리고 부모와 형제 조카들. 회사에 오
 면 십수년 함께한 회사 동료들 친구들 어느 누구 하나도 소중하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 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고마운 사람 중
 심에는 나라는 사람이 있더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어려운 일, 힘든 일 괴로운 일이 있어도 항상 열심
 히 살아준 내 자신에 대한 감사는 한적 있는지? 역시 답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 지금껏 열심히 살아줘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어느 지인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고 아껴야 남도 나를 귀하게 여
 기고 함부로 하지 않는다.
 고맙다. 그 동안 열심히 살아 줘서 고맙고 건강해서 고맙고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
 여러분! 여러분도 자신에 대한 소중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감사함을 전해 보세요.
 행복은 '써어비스'로 따릅니다.
 지난 십수년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항상 그 자리 에서 열심히 살아준 내 자신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대덕스토리로 온
행복 편지,
그 첫 번째 이야기

- P3 제조그룹 강정훈 사우 가족

대덕스토리 행복편지의 첫 주인공은 P3 제조그룹 강정훈 사우이다. 강정훈 사우와 아내 김화연님은 대덕전자에서 맺은 인연으로 행복 가득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 앞으로도 두 분의 멋진 사랑을 대덕스토리가 응원한다.

사랑하는 여보 보세요!
가끔씩 몇 글자씩 적어 보내며 사랑을 확인 시켜주곤 했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어서 속스럽지만 한번 용기를 내 사랑을 고백해 봅니다.
당신과 만나 가정을 이룬지 벌써 11년째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아들을 낳거나 얻었다는 것이고 또 쌍둥이를 키워보는 즐거움도 당신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변함없이 퇴근하는 나를 기다려 주는 당신이 고맙고 사랑스럽기만 합니다.
교대근무 특성상 밤 늦게 퇴근하는 나와 함께 앉아 늦은 저녁을 같이 먹으며 하루 종일 있었던 이런저런 아이들 이야기를 해주는 당신,
요즘은 안아 보기도 힘들게 체중이 많이 늘었지만 이런 당신이 사랑스러운건 당신이 가족에게 보여주는 사랑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고,
아이들 역시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엄마를 찾는 것이 나의 눈에는 더 없는 행복입니다.
그만큼 당신은 우리집에서 소중한 사람이며 우리집의 안 해입니다.



우리집의 안 해, 우리집 안에서 태양처럼 없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나 역시 집에 돌아오면 당신을 찾고, 아이들도 엄마부터 찾는 것이 당신의 존재는 우리집에 안 해가 틀림없다는 증거입니다.
나와 아이들에게 사랑을 듬뿍 주는 당신이어서 더 없이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내가 늘 입버릇처럼 하는 말 알죠?
누가 봐도 아이들을 더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의 일번은 당신이고 또 아들 낳아 키우며 많은 것을 포기하며 희생해야겠지만 다 포기해도 건강과 웃음만은 포기하지 말자는 말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나이 들면서 하루하루 함께하는 것이 정말 행복하고, 또 결코 쉬운 일이 아닌 아들 낳아 키우면서 느끼는 행복으로도 나중이 기대가 됩니다.
지금은 우리 가족에게 조금은 힘든 시기이듯 하지만 다시 생각하면 지금이 가장 행복한 시기인 것 같고 또 틀림없이 나중은 큰 보람을 느끼고 이

생각은 당신도 나와 같을거라 생각합니다.
요즘 남자뿐인 집에서 목소리도 커지고 점점 남자가 되어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지만 이 또한 노력하는 당신이기에 사랑스럽고 당신이 이렇게 강해서 누가 봐도 당당한 당신(엄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에게는 사랑 받는 여자, 아들들에게 사랑 주는 어머니결 잊지 말고 당신이 당신 스스로를 사랑해야 우리집에도 계속되는 사랑과 평화가 있다고 생각하는 나이니 바쁘고 힘들수록 꼭 제때 밥 잘 챙겨 먹어요.
나는 당신과 결혼해서 행복하고 나와 결혼해 주셔서 고마워요.
당신은 정말 매력있는 여자입니다. 사랑해요.
그리고 지금이 행복이다. 이게 행복이다. 생각하고!
화연아, 오빠만 믿어! 한 세상 멋지게 살아 볼 테니^^
2015년 3월 11일
당신의 남자 강정훈 씀
PS. 큰 그림은 점부터 시작이고 아무리 먼 길도 한걸음부터 시작이며, 이 모든 것은 밥 한 숟가락부터 시작입니다.



자연 속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생일파티!
- 생산관리그룹 이훈중 대리 가족의
가평 여행기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는 3월, 3대가 함께 가족 여행을 다녀왔다.
생산관리그룹 이훈중 대리는 여행지에서 서로를 마주보고
다 같이 시간을 보내며 가족의 소중함을 한층 더 느끼고 돌아왔다.
봄별만큼 따뜻한 가족의 여행을 따라가보자.

장모님 생신 기념 여행을 떠나요~

3월, 봄을 맞아 가까운 가평과 양평으로 가족 여행을 다녀왔어요. 장모님 생신을 맞아 처남댁 내외와 함께 총 7명의 가족이 남이섬으로 출발했습니다. 꽃샘추위가 아직 가시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봄이 물씬 다가온걸 느낄 수 있었고, 날씨도 화창해서 여행길이 더욱 즐거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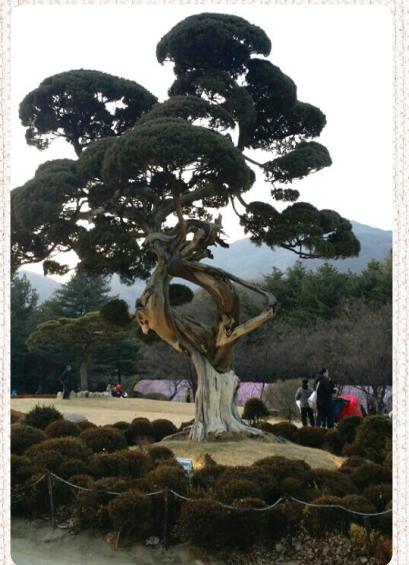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남이섬과 아침고요수목원도 가고, 저녁에는 불빛 축제도 구경하고 다음날에는 용문역 근처에 있는 레일바이크를 탔는데, 페달을 밟으며 보는 풍경이 어찌나 상쾌하던지! 즐거워하는 가족들을 보니 저도 덩달아 기분이 더 좋아졌어요. 양평 5일장 구경도 한 후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여행에는 그동안 바빠서 함께하지 못했던 처남 내외도 함께 간 여행이라 더 의미가 깊었어요. 육아에 지친 아내에게도 작은 선물이 된 것 같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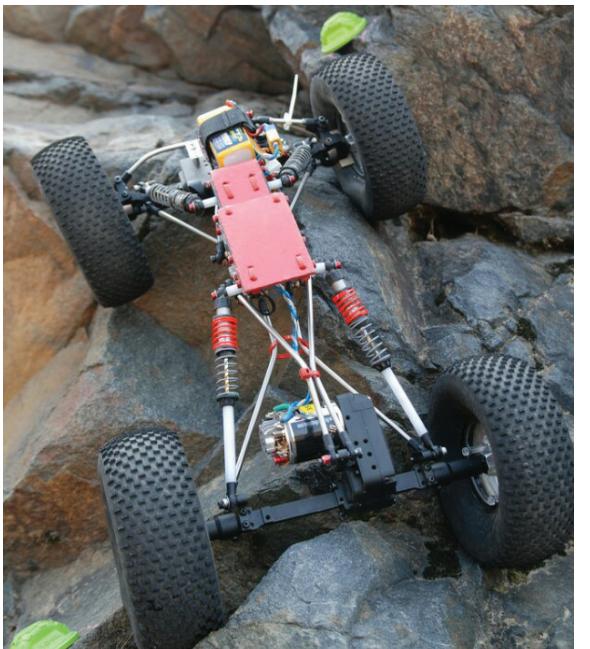
꼭 멀리 가지 않아도 좋아요, 가족과 함께 힐링하는 여행이라면~

또 한가지. 장모님께서 정말 좋아하셔서 제 마음이 뿌듯하고 기뻐했습니다. 장모님 생신을 맞아 가족들이 의기투합해 모인 여행이었고, 그간 몸과 마음이 많이 많이 편찮으셨던 어른들께 휴식을 드리고 싶어서 계획한 여행이었습니다. 화창한 봄날에 가까운 여행지이지만 좋아하시는 어른들을 보니, 그 동안 저희끼리만 놀러다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동안 여러 이로 힘들어하셨던 장모님께서 레일바이크에서 내리며 "몸과 마음이 맑아진 것 같이 시원하다"며 아이처럼 좋아하셨던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네요. 자주 모시고 가지 못해도 1년에 1~2번은 어른들을 모시고 가까운 곳이라도 가려고 노력하는데 이번에는 1년 만에 떠난 여행이었습니다.

가족은 비타민이자 보약이죠

가정이 생기고 아이가 자랄수록 가족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족은 제게 편안한 안식처입니다. 이번 가족여행을 계기로 가족끼리 한층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고, 지쳐있던 일상에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평상시보다 가족끼리 많은 대화를 나누고 무언가를 함께 공유 했다는 점이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가족이란 힘든 일상생활에 지쳐 있는 몸에 활력을 불어 넣어 줄 수 있는 비타민이자 보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내가 있기 때문에 가족이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마음에 품고 하루하루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나의 가족들에게 맹세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가족에게 이 세상 무엇보다도 사랑하고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저의 RC는
신나게 질주할겁니다!

취미를 시작하게 된 건 우연한 일이었다. 19살 때, 옆집에 살던 형이 이사를 가며 버리고 간 레보 3.3 이란 엔진 RC카를 가지고 놀면서 시작하게 된 것이, 현재는 방 안 가득 연장과 RC들로 채우게 됐다. 안산과 시화에서 동호회 활동을 활발히 하고, 산행 모임도 꾸준히 가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됐고,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과의 친목을 통해 평일의 스트레스를 날린다. 또한 산을 타면서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평소에도 RC를 비롯하여 캠핑, 프라모델, 도색, 파충류 키우기, 낚시 등 여러 가지 취미생활을 즐기고 있는 박준 사우. 앞으로도 계속 RC를 즐기겠다는 질문에 주저 없이 YES! 라고 답하며, RC를 시작하고자 하는 대덕전자 사우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작은 도움을 주고 싶다고 전했다.

거칠게 질주하고 섬세하게 조종하는 RC의 매력

- P1 제조그룹 박준 사우

작지만 박력 있는 취미,
RC를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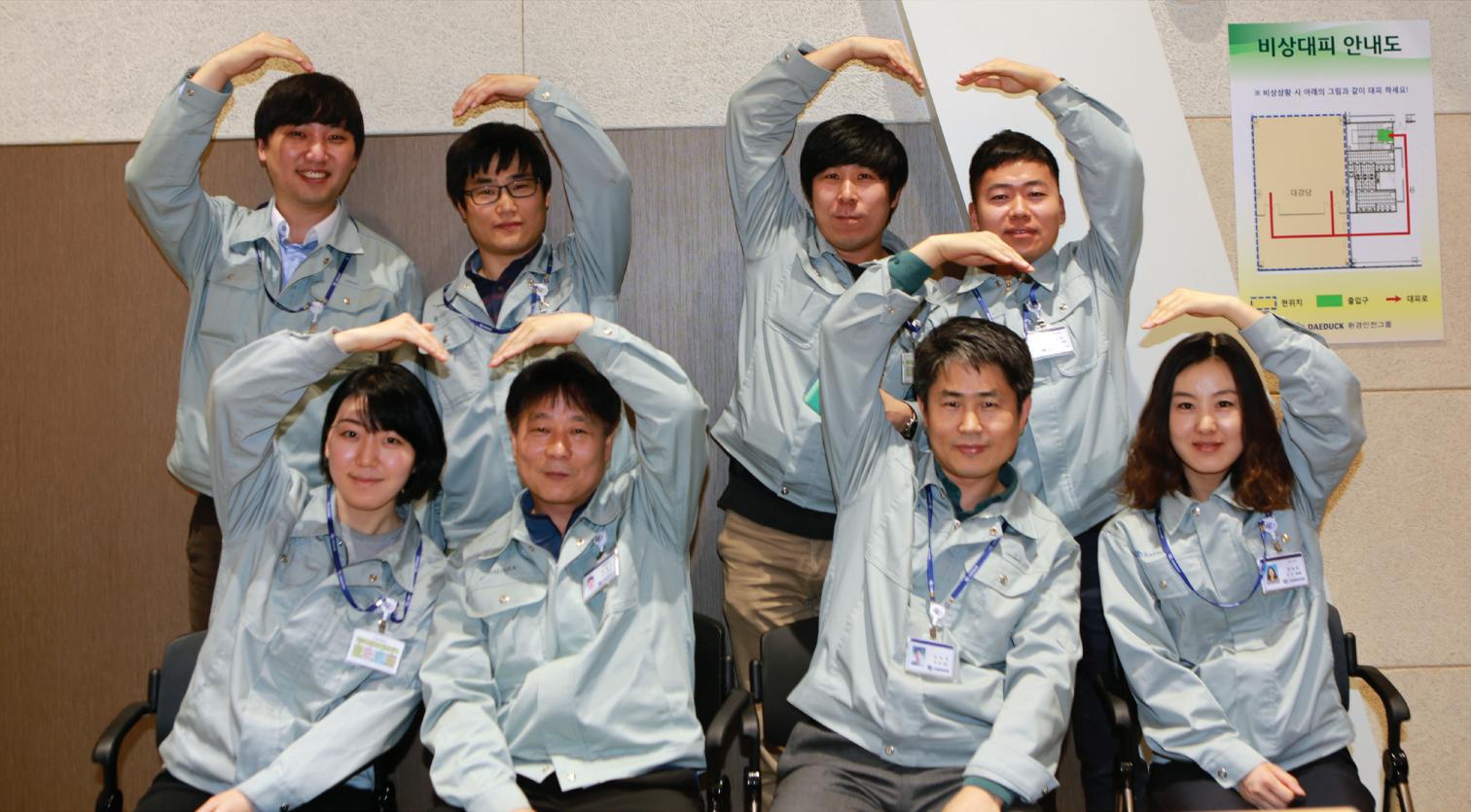
RC는 'Radio Control' 을 말하는 것으로 무선으로 조종하는 미니 자동차와 비행기, 배를 통칭한다. 박준 사우는 RC 중에서도 트라이얼, 락클라우링이란 오프로드 계열을 즐기고, GPS기능이 있는 쿼트 컴퓨터로 비행까지 한다. 특히 항공 촬영에 관심이 생겨 최근에 연습에 몰두하고 있다고 전했다.

"많은 분들이 비용에 대해 궁금해 하십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 xr-100이란 락클라우링이 있는데 이것만 280만원 정도 들었죠. RC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겐 이해가 되지 않는 금액이지만, RC를 취미로 즐기는 사람들 사이에선 아주 저렴하게 즐기는 편이죠. 기혼인분들은 가정의 평화가 한 순간에 위기로 바뀔 수 있는 위험한 취미라고도 할 수 있을까요?"

● RC tip

RC의 시작과 발전

처음 장난감 자동차에 무선 조종 기술이 사용된 것은 1950년대 후반으로, 하나의 채널이 내장된 방식이었다. 이후 on-off 시스템이 개발되어 자동차의 조종에 큰 도움을 주게 된다. 1960년대 트랜지스터 기술(transistor-base)을 이용한 장비가 도입되었고, 1970년대에는 통합 회로가 전자 장비를 충분히 널리 활용할 수 있을 만큼 작고 가볍게 그리고 저렴하게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멀티 채널이 생겨나게 되었고, 이런 기술적 진보는 전진과 후진만 가능했던 무선 조종 장난감들이 우회전, 좌회전이 가능하도록 이끌었다.



우리가 대덕전자의 얼굴이다!

대덕전자의
완벽한 품질을 향해
노력, 또 노력하는
QA그룹



+
매의 눈과 논리적인 언변으로 최고 품질을 사수하라!
QA그룹은 그룹리더 이민우 부장을 중심으로 인원이 총 80명이 넘는 대규모 부서로써, 고객에게 제공되는 제품과 서비스가 고객이 요구하는 품질수준에 만족할 수 있도록 품질 시스템 내에서 계획적이고 시스템적인 활동을 행하며, 올바른 틀을 세우는 부서이다.
세계 반도체 후 공정 산업을 이끌어가는 국내외 30개 이상의 최고 그룹과 직접 소통하는 4개의 CS파트와 내부공정의 마지막에서 제품 품질을 검증하고 보증하는 2개의 출하검사 파트로 이루어져 있다. 최종적으로 품질이 보증된 제품을 납품하고, 고객요구사항을 잘 이행해서 내부 품질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업무를 하며 품질문제를 최소화 해서 고객의 만족을 이끌어 냈을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
“불량을 최소화 한 결과 고객사에서 감사하다는 메일을 보내온 적이 있어요. 그 동안의 고생이 싹 씻어지더라고요.”
CS파트에게 ‘불량’이란 고객이 불량이라고 하면 불량이 되고, 괜찮다고 하는 건 괜찮은 것이다. 같은 현상이지만 그것이 고객에 따라 불량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QA그룹은 그것이 최대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설득을 한다. 그러다 보니 고객에게 직접 제안을 하여, 고객사에서도 발생하는 불량문제를 크게 줄이고 큰 효과를 본 적도 있었다.
결국 문제를 해결 할 때, 특히 단순 해결보다 고객과 같이 협의해서 효과를 봤을 때, 그 어느 때보다 큰 기쁨을 느낀다는 CS파트원들의 눈빛에서 회사를 대표하는 담당자로서의 굳은 의지가 돋보였다.



+
우리의 책임감과 끈기가 회사의 이익으로 이어집니다
QA그룹은 항상 너무나 바쁘다. 대덕스토리 인터뷰를 요청했을 때에도, 모두가 한 자리에 모이기가 쉽지 않았다. 계속되는 회의와 자꾸만 늘어나는 업무들은 끊임이 없다. 고객사별로 담당자가 지정되어, 한쪽에 이슈가 많이 쏠릴 때에는 어쩔 도리가 없다. 옆에서 돕고 싶지만 서로 서로 여력도 안될 뿐만 아니라, 그 업무의 대체자가 없는 만큼 내용을 알지 못해 돕기도 쉽지 않다.
최근에는 고객사의 공정이 자동화 되었다. 그렇다 보니 고객은 점점 더 제품을 엄격하게 관리한다. 우리 회사도 예전에 비해서 실력이 많이 늘어났지만, 고객의 요구도 그만큼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수율이 예전에 비해 잘 올라가지 않고 있는 추세라고 전했다. 그만큼 업무를 하는데 있어 많이 어려워진 상황이지만, 책임감만큼은 더욱 굳건해졌다.
또한 QA그룹의 업무는 원가절감과도 밀접하다. 따라서 회사의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책임감은 자연스럽게 뒤따르게 된다.
“제품 수축으로 인해 발생된 문제가 있었어요. 엔지니어와 함께 원인을 파악하는 것도 무척 힘들었어요. 그런데 결국 해결 방법을 찾아내어 고객에게 그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설득했고 결국 15억의 클레임 발생비용을 0원으로 만들 수 있었어요.”



“2010년 일이에요. 모두가 희식 중이었는데, 불량 발생했다는 얘기를 듣고 다 함께 회사로 들어왔죠. 그리고 밤새도록 샘플들을 다 찾아서 발생여부를 하나하나 찾아봤어요. 변형직 차장을 포함하여 8명의 인원이 역할을 나누고, 불량 찾기에 집중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한 달이 걸려서 문제를 완료 했었어요. 그때만해도 고객이슈는 매우 크고, 인원은 부족해서 밤새는 경우가 참 많았지요.”

+
끊임없는 배움과 발전이 필요한 곳, QA그룹

‘QA그룹원으로서 필요한 자질은?’ 이라는 질문에 모두가 하나같이 ‘끈기’를 꼽았다. 단기간에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한달, 두 달까지 지속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계속해서 신경을 써야 하고, 고객사의 요구에도 대응하고 완료되기 까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끈기 있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출하검사 파트에서는 만들어진 제품을 샘플링 해서 제품을 최종적으로 확인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꼼꼼함 또한 놓칠 수 없는 자질이다. 그리고 고객을 설득시키기 위한 논리적인 사고 또한 필수요건이다. 이외에도 내부적으로는 공정, 기술, 제조, 영업과도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소통 능력 또한 빠질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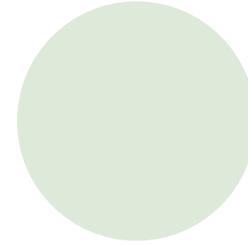
이런 점에서 QA는 ‘배움의 곳’이다. 내부적으로는 제품의 원리와 기술적인 부분도 알아야 하고, 타 부서와도 원활하게 협업하는 리더십이 요구된다. 또한 고객을 대할 때에는 서비스 마인드를 꼭 갖춰야 한다. 다방면에 뛰어난 다재다능한 능력을 지녀야 하기 때문에 늘 배움을 멈출 수가 없다. 최근에는 해외 고객사 대응으로 인한 외국어 능력까지 요구되어 부서 내 학구열이 뜨겁다.

QA 그룹은 ‘힘들지만 성장하는 곳’이었다. 누구 하나 해결해야 할 문제를 가지지 않은 사람 없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 곳이었다. 조용하지만 실속 있게 품질을 보증하고, 고객에게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설명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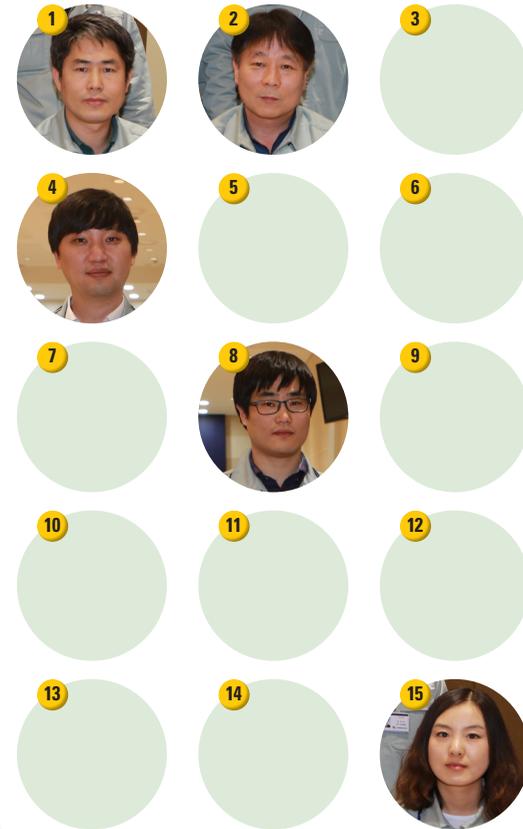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QA 그룹’! 목표를 물으니, 더 많이 배워야 한다고 전했다.

“지식이 많이 필요합니다. 배웠다고 생각했는데 끝이 안보이고, 계속해서 배워야 할게 생깁니다.”라고 전하는 QA그룹의 겸손함에서 우리의 더 밝은 미래를 엿볼 수 있었다. QA그룹 파이팅!!

나에게 QA그룹이란?



이상철 상무 저에게 QA는 항상 고맙고 미안한 그룹입니다. 고객의 품질 VOC 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업무를 담당 담당하다 보니 항상 스트레스가 많고 시간에 쫓기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휴일을 반납하고 밤샘을 며칠씩 하는 경우도 다반사구요. 이러한 어려운 일들을 묵묵히 해주는 이부장을 비롯하여 모든 QA 담당자들에게 고맙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응지에서 양지를 지향한다는 말처럼 고객의 VOC를 통하여 내부개선을 끊임없이 한다면 언젠가는 QA가 좀 여유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희망을 가져 봅니다. QA 파이팅.



- 1. 이민우 부장** 인간관계로 보면 또 하나의 가족입니다. 또한 QA는 ‘1월 말의 호수의 얼음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잘못하면 폭 빠지기도 하는 곳 이랄까요.
- 2. 변형직 차장** 제품 들어갈 때부터 고객에게 나가서 피드백을 받을 때까지... 정말 모든 부분을 다 알고, 신경을 써야 하지요. QA에서 일을 하려면 그야말로 전천후 인간이 되어야 하지 않나 싶어요. 대신 고생한 만큼 많이 배울 수 있어요.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다 보면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 3. 유성률 대리** 골키퍼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최후방에서 품질을 방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4. 김성호 대리** 회사의 얼굴이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고, 컴플레인을 걸수 있고... 우리가 하는 것들이 모두 얼굴이고, 중요하지요. 우리가 내보내는 데이터가 결국엔 대덕에서 보내는 자료가 되니까요.
- 5. 김우태 대리** 대덕전자의 ‘외교관’이 아닐까요? 고객사 요구사항과 내부 고객(타 부서)이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중재역할을 잘해야 합니다. 열 가지 역할을 잘해야 회사도 잘 돌아가고 고객사도 만족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 6. 하용수 대리** ‘늬’이예요. 계속해서 빠져들어요.
- 7. 장철민 사원** 우리의 가슴을 항상 두드리고 있는 곳입니다. 내부 품질이 있으면 가슴이 메이고, 고객품질이 이슈 되면 가슴이 답답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나의 비전을 볼 수 있는 곳이에요.
- 8. 김태형 사원** ‘집’입니다. 처음 직장생활을 시작한 곳이에요. 2010년 입사해서 처음 시작한 일이었고, 하다 보니 이제 계속 QA업무만 할 것 같은 자신감과 의지가 생겼어요.
- 9. 조상훈 사원** 고객의 신뢰를 책임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제품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고객이 만족될 수 있도록 품질을 보증하며 불량유출을 방지하는 곳입니다.
- 10. 이상현 사원** 부모님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엄마 역할이요. 부모님께서 자식이 어디에 가서 어떻게 보일까 생각하듯이 제품이 나갔을 때 고객이 보고 어떻게 평가할 까 생각하고, 문제 발생하면 가장 먼저 다가가서 대처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 11. 한신엽 사원** 제2의 학교입니다. 처음 입사 때는 많은 것을 배우면서 지식을 습득했고, 지금은 부서 후배들에게 그때 배웠던 지식들을 하나하나 전달하면서 또 다른 무엇인가를 배우고 있어서입니다.
- 12. 류인형 사원** 제2의 가족입니다. 실제로 업무로 인하여 가족들 보다도 오랜시간 같이 생활하며, 서로 도우며 품질관련 업무를 하고 있지요.
- 13. 김태훈 사원** ‘영화’입니다. 때로는 박진감 넘치고 감동이 있어요. 때로는 공포도... 따르지요. ^^
- 14. 김우광 사원** 기술영업인 것 같습니다.
- 15. 전향화 사원** 저에게는 배움의 길입니다.



짠맛의 유혹

- 소금 섭취량 최고를 자랑하는 한국인의 식단, 이제는 바꿔야 할 때

얼마 전, 요즘 인기인 한식 뷔페에 가서 점심을 먹었다. 후식 겸 호박죽을 떠왔는데,

한 입 먹는 순간 ‘우와~’ 호박죽의 맛이 아주 깊고 진했다. 달고 맛있는데...

다시 한입 먹었더니 단 맛 뒤에 숨은 어마 어마한 짠 맛이 느껴졌다. 단 맛에 소금을 더하면 맛이 강해지고 더 달게 느껴진다. 맛을 위해 건강을 포기하는 것이다. 짠맛의 유혹,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 벗어나야 할 때이다.

사실은 건강에 적신호를 보내는, 한국의 화끈한 맛!

일본식 메밀소바를 먹으며 ‘국물이 참 짜네’라고 생각 한 적 없는가? 유럽의 어딘가에서 흡합스투 한 입을 떠 먹고는 ‘의외로 너무 짜잖아!’라고 생각한 적은? 맛다. 유럽의 음식은 짜고, 일본의 음식은 짜고 달다. 그런데 이런 짠 음식들을 제치고 우리나라가 ‘나트륨 섭취량 세계 1위’이다. 2009년에 이미 우리나라 사람들은 권장 나트륨량의 3배에 해당하는 나트륨을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유가 뭘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떡볶이, 라면, 짬뽕, 김치, 비빔국수, 쫄면, 양념치킨, 닭강정, 제육볶음, 낙

지볶음, 순대볶음, 닭발, 닭볶음탕, 아귀찜, 부대찌개... 등을 가만히 살펴보면 공통되는 특징이 있다. 맵다. 그런데 문제는 맵고 달고 짜다.

소금만 빼다고 저염식이 아니예요~

한국인의 매운맛. 한국인은 땀을 흘리며 후후 불어가며 먹는 뜨거운 맛을 좋아한다. 하지만 매운 맛은 엄밀히 말해 맛이 아니라 감각이다. 통각인 것이다. 그냥 맵기만 하다면 너무 고통스러워서 절대 먹을 수 없다. 매운맛을 먹고 도파민이 분출되게 하려면 단맛이 함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매운

맛과 단맛만 있으면 균형이 안 맞으므로 짠맛도 필요하다. 균형을 맞춰야 하니 매운맛이 강해지면 단맛도 강해지고, 뒤따라 짠맛도 강해진다. 저염식이라고 해서 소금만 빼면 안 되는 이유다. 맛의 균형을 잡아 먹을만한 저염식을 만들려면 먼저 고추부터 빼야 한다. 그러면 단맛이 덜 필요해지고, 덩달아 소금도 줄게 되어 있다.

짠맛 중독에서 벗어나는 첫걸음

짠맛도 중독이다. 그러므로 당연히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루 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다. 라면에 물을 많이 넣어 끓이고, 햄은 데쳐 먹고, 소금보다는 콩을 발효한 간장을 사용하면 서서히 몇 달에 걸쳐 입맛을 바꾸며 ‘양념 맛’이 아닌 재료 본연의 맛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동시에 염분을 배출시키는 것을 돕는 칼륨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되니, 가정에서도 잊지 말고 챙겨 보시길.

우리 몸 속의 염분을 배출시키는 6가지 식재료



- 바나나** ★ 바나나 한 개에는 사과의 4배에 해당하는 500mg의 칼륨이 포함되어 있다. 바나나를 깎거나 한 개씩 먹는 것만으로도 평균 나트륨 섭취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 브로콜리** ★ 브로콜리 한 개에는 바나나에 버금가는 450mg의 칼륨이 포함되어 있다. <타임스>가 선정한 10대 슈퍼푸드답게 암 예방과 콜레스테롤 조절에도 효과적이다. 우유와 함께 마시면 나트륨 배출에 매우 좋다.
- 가지** ★ 가지는 열을 내려주는 효능이 있어, 다가오는 여름에 먹으면 더욱 좋다. 나트륨과 부기를 빼는데 효과적인 칼륨이 100g당 210mg이 포함되어 있다.
- 토마토** ★ 어느 TV프로그램에 출연한 여러 의사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의사들이 아침마다 가장 즐겨 먹는 식사는 토마토였다. 혈압조절에도 탁월한 토마토는 한 개당 400mg의 칼륨이 들어있다.
- 숙갓** ★ 여름의 불청객, 열대야를 잡아주는 것이 바로 숙갓이다. 숙갓은 100g당 450mg의 칼륨이 들어있어 신경안정을 도와 열대야로 수면부족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좋고 나트륨 배출도 돕는다.
- 검은콩** ★ 검은콩에는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칼륨이 100g당 1,240mg이나 포함되어 있다. 콩국수를 먹으면 가장 많이 잘 섭취할 수 있지만 콩국수 한 그릇에 들어가는 소금의 양이 은근히 많으므로 간을 맞출 때 고소함에 집중해 천일염을 조금만 사용하는 것이 좋다.

건강한 직장 생활을 위한 대덕전자의 사내 ‘소금 줄이기’ 캠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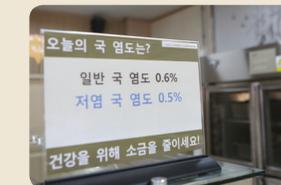
1. 미각테스트



소금 줄이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가장 먼저 ‘미각 테스트’가 실시됐다. 5가지 시료를 시음해, 맛의 정도를 체크하면 ‘내가 얼마나 짜게 먹는가’에 대한 결과를 받을 수 있는 테스트이다. 많은 임직원들이 호기심을 갖고 테스트에 임했다.

결과는?
보통(69%)>약간짜게(16%)>약간싱겁게(10%)순으로 대덕인들은 전반적으로 짜게 먹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2. 건강코너 운영



저염 김치와 저염국, 현미밥, 저염 간장을 별도로 배치한 건강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3. 삼삼한 Day’ 실시



매주 수요일을 삼삼한 Day로 지정했다. 평소보다 염도가 낮은 국(평균 염도 기준 0.1% 이하) 제공을 작은 국그릇에 제공하고 있다.

DAEDUCK News

2015 vol.05 Spring

제43기 정기주주총회 성료



지난 3월 20일 P2 3층 대강당에서 제43기 정기주주총회가 있었다. 이에 따라 재무제표 승인과 이사 선임의 건 등을 의결 했으며, 이 자리에서 신임 이사로 이진환 부사장이 선임됐다. 또한 본점 소재지 이전에 따른 정관 변경 승인으로 안산공장에서 시화공장으로 본점이 이전될 예정이어서, 보다 효율적인 공장운영으로 대덕전자가 제2의 비상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날 주주총회에서 김영재 사장은 “대덕전자의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성원으로 격려해주시는 주주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세계 PCB 시장에서의 기업가치를 증명하는 한 해가 되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해동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 개최



해동장학생 수여식이 있었다. 지난 2월 16일, 대덕전자 P2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선발 장학생 22명과 대학교수 총 9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동과학문화재단소개와 장학증서 수여, 이사장 격려사, 학생대표 감사 인사, 대덕전자 선배와의 대화 시간 등이 진행됐다. 이날 인하대학교 김제현 학생은 감사인사를 통해 “꿈을 잃지 않고 꾸준한 노력으로 재단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전했으며, 한양대학교 유효정 학생은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용기를 얻어 목표였던 화공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안-출입통제 시스템 지속 운영



- 1) 외부인 방문예약
 - 방문객의 시간, 이름 기록, 부서장의 사전 승인
 - 위험한 물품 소지자에 대한 사전 출입 통제
- 2) 출입증 관리/패용
 - 출입증은 모든 인원(임직원 포함) 패용
 - 보안검색 등 보안통제 준수
- 3) 통제구역 출입
 - 통제구역 또한 권한이 없는 곳 출입금지
 - 필요시 부서장의 승인 및 출입자 지속 관리

Prismark Seminar



지난 3월 25일, Electronics Market 정보 관련 공유를 통한 시장현황 파악을 목적으로 Prismark Seminar가 진행됐다. Dr.Chiang(現 Prismark consultant)의 강의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Electronics Market, PCB Market, HDI, Substrate, MLB Highlights에 관한 주제로 열렸으며, 영업 및 개발 중심으로 약 100여명이 참석해 교육 기회를 가졌다.

꽃동네 연수



봉사 체험 및 연수를 통한 이웃사랑 실천을 위한 꽃동네 연수 1차수가 무사히 마무리 됐다. 지난 3월 11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 이번 연수는 대덕전자 22명, 대덕GDS 6명, 히로세코리아 7명 등 총 35명이 참가했다. 이번 연수를 통해 PKG납기혁신그룹 최성규 사원은 “많은 것을 생각하고 많은 것을 배워가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모든 일에 감사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 작은 힘이나마 회사의 번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DAEDUCK News

2015 vol.05 Spring

산업혁신운동 우수사례기업 현장 방문



대덕전자는 지난 해 산업혁신운동 '우수모기업상'을 수상했다. 이에 따라 산업혁신운동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산업혁신운동 2차년도 참여 기업 방문이 있었다. 방문기업은 우수모기업상을 수상한 대덕전자와 우수기업상을 수상한 대덕전자 BBT 협력사 'LM디지털' 총 2개 기업으로 우리 회사에는 3월 26일, 산업혁신운동 2차년도 참여기업 총 20개사 대표이사 및 임직원 총 33명, 삼성전자 상생협력센터와 산업혁신운동 중앙추진본부 관계자 등 총 40여명이 방문했다.



본점 소재지 시흥시로 이전



4월 1일부로 우리 회사의 본점이 '안산시 단원구 범지기로 27'에서 '시흥시 소망공원로 335'로 변경됐다. 이로써 새로운 미래를 연다는 사명감으로 시흥시에서 제 2의 도약을 다짐해본다.

생생 대덕 정보통!

봄 봄 봄, 봄 축제가 왔어요~

봄바람 맞으며 우리 가족과 함께 가면 좋을 봄 축제들

바야흐로 봄이 왔다. 3월 초까지만 해도 분명 '꽃샘 추위가 여간 아니다'며 겨울 코트를 입었는데, 한 밤 자고 눈 뜨니 봄이 성큼 다가왔다. 겨울 추위를 핑계로 야외 활동을 좀 즐겼던 우리 가족, 엉덩이가 들썩들썩 콧바람이 살랑살랑 마음이 간질간질하다면 다 같이 손 잡고 축제 속으로 들어가보자. 전국 팔도에서 봄 맛이 축제가 한창이다.



봄은 벚꽃 엔딩이 아니라 벚꽃 스타트!
석촌호수 벚꽃축제

봄 축제에 벚꽃이 빠지면 섭섭하다. 경주 벚꽃축제나 진해 군항제, 하동 벚꽃 축제가 가장 유명하지만 거리가 있어 마음 먹고 가야 한다. 조금 더 가까운 곳을 보면 석촌호수 벚꽃축제도 있다. 매년 벚꽃 개화 시기에 맞춰 석촌호수에서 다양한 문화 예술공연, 전통예술공연, 음악회, 각종 체험전, 캐리커처 등이 열린다. 롯데월드와 가깝기 때문에 아이들과 놀이공원에서 놀고 살짝 들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축제기간: 2015.04.10~2015.04.12

장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로 148(잠실동)

문의: 송파구청 02-2147-2800

홈페이지: 송파구청 문화관광 www.culture.songpa.go.kr



**아이들에게 흠 만지는 체험을
문경 전통 찻사발 축제**

올해로 17회를 맞이하는 축제로 예로부터 내려오는 문경의 전통 방식인 사토를 캐내어 수비해 찻사발을 만드는 과정을 풀어간다. 찻사발 공모전과 찻사발 국제교류전, 어린이 도공전 등 다양한 도자기와 찻사발을 볼 수 있으며 아이들은 도자기 빚기, 찻사발에 그림 그리기, 도자기에 소원 쓰기, 발물레 빨리 돌리기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축제기간: 2015.05.01~2015.05.10
장소: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문의: 054-550-6395
홈페이지: www.sabal21.com

**봄철 대표 생선 멸치 만나기
기장 멸치축제**

부산의 아름다운 항구 도시 대변항 일대에서 멸치 수확이 가장 많은 4월에서 5월 사이에 개최된다. 기장하면 대변의 멸치를 떠올릴 만큼 전국적으로 유명한 봄철 대표 수산물인 멸치를 알고 다양하게 먹을 수 있다. 대변항에서 생산되는 일명 왕멸치는 국내 생산량의 65~70%를 차지할 정도로 수확량이 많다. 마른 멸치만 보던 아이들에게 마르기 전 팔딱이는 커다란 멸치와 멸치 회, 멸치 찌개, 멸치 쌈 등을 맛 보여 줄 수 있다.

축제기간: 2015.04.24~2015.04.26
장소: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대변항
문의: 기장군청 해양수산과 051-709-4502
홈페이지: http://tour.gijang.go.kr



결혼을 축하합니다



고기석 대리

1월

- 1/17 P1제조그룹 김강일 사원
- 1/18 QA그룹 송인영 사원
- 1/31 P3개발그룹 서미림 연구원



이창규 연구원



송인영 사원



서미림 연구원



나은성 연구원

3월

- 3/7 재경그룹 안태현 사원,
자재관리그룹 김진용 사원
- 3/8 P3기술그룹 이창규 연구원
- 3/14 국내영업2그룹 고기석 대리
- 3/21 개발1그룹 나은성 연구원,
P2 제조1그룹 정윤성 조장



DAEDUCK story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대덕가족의 행복한 순간을 대덕스토리는 함께하겠습니다.
onairhann@daeduck.com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보내주시면,
더 풍성한 사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대덕전자(주)

P2, P3

경기도 시흥시 소망공원로 335 (정왕동)

Tel: 031-8085-7337 Fax: 031-497-0906

P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 473 (목내동)

Tel: 031-362-8100 Fax: 031-362-8115

P4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범지기로 27(목내동)

Tel: 031-599-8800 Fax: 031-481-8245

CNC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29

Tel: 031-599-8869